

2020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오후)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및 마킹(진하게)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 1] (나)의 내용을 ㉠, ㉡, ㉢ 가운데 하나를 들어 설명하고, (라)의 시적 화자가 ㉢처럼 표현한 이유를 (다)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성(性)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 **생물학적 성(sex, 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 **사회적·문화적 성(gender, 젠더)**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성은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 성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구사하기 위해 성, 젠더, 성애 등으로 아예 단어를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다. 즉, 인간은 성과 무관하게 평등하므로 성에 근거하여 법률적·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아서 안 되고, 성을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에 근거한 차별이 있었다.

성차별은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인데, 주로 여성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임신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다. 한편, 최근에는 남성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였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 바탕에는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성 역할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양육 과정과 학교 교육 등 사회 환경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인식 하에서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특정한 성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양성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나)

‘안사람’이라는 단어가 남성 위주적 가치관에 의한 여성 착취적 장치라는 논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안사람’은 오히려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자연적 사실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그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양식에서 근거한 말이라는 주장이다.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은 사회 분위기가 살벌할수록 안채나 안방과 같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외부를 거쳐야만 달을 수 있는, 보호의 성격을 띤 공간 안에서 인간적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육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15세에서 40세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있거나 임신의 결과물인 육아에 불가피하게 매여 있는 기간이 그렇지 않은 기간보다 더 길다. 그래서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원시 시대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육체적 힘이나 체력이 강한 남성은 야생의 동물을 사냥하러 거친 대지를 돌아다녀야 했고,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은 주거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몸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안사람’이라는 단어를 남성 위주적 가치관에 의한 여성 착취적 장치라는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오히려 남녀의 육체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 장 계속>

(다)

남자가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는 결코 어떤 생리적·심리적·경제적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명 전체가 수컷과 거세체(去勢體) 사이의 중간 산물을 만들어, 그것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타인이 끼어들어야 비로소 개인은 '타자'가 된다. 어린이는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성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소녀·소년에게 처음 얼마 동안 육체는 주체성의 발현이며,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이들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눈이나 손을 통해서이지 생식기를 통해서가 아니다. 출생의 드라마는 물론, 이유(離乳)의 드라마도 남녀 유아에게 모두 똑같이 전개된다. 그들은 같은 흥미와 쾌감을 느낀다. 열두 살까지는 여자아이도 남자 형제들 못지 않게 튼튼하며, 결코 뒤지지 않는 지적 능력을 나타낸다. 여자아이들이 남자 형제들과 경쟁하지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극명하게 갈라진다. 남자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자기에 대해 스스로를 설정하도록 그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운동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나간다. 다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강한 의지와 독립심을 겨루면서 여자아이들을 경멸한다. 나무에 기어오르고, 친구들과 격투하며 거친 장난으로 대결하고, 자기 육체를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과 투쟁의 도구로 파악한다. 이와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다. 그녀는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여자아이도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남자아이와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년기의 여자아이는 여자의 손에 맡겨진다. 남자아이가 어머니의 수중에서 곧 벗어나는 것과 달리 어머니는 딸을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거세체(去勢體) : 생식 기능을 잃은 몸.
- 이유(離乳) : 젖먹이가 자라서 젖을 그만 두게 됨.

(라)

옛그제 저멋더니 ㅎ마 어이 다 늘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슴 ㅎ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 ㅎ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 ㅎ더니,
삼생(三生)의 원업(冤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游俠) 경박자를 꿈곤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 ㅎ기 살어름 디되는 듯,

<다음 장 계속>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얏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 하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데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나
 스스로 참괴(慚愧) 하니 누구를 원망(怨望) 하니.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잇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데어데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굿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은,
 열두 때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 한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띄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무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올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중략)

세상의 서운 사람 수업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가뜰니 또 이실가.
㊤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 동 말 동 하여라.

- 월하(月下) : 월하노인의 준말, 남녀를 중매하는 역할을 맡음.
- 경박자 : 경박한 사람.
- 천연여질(天然麗質) :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 뵈오리 : 베틀에 걸린 베올 사이에.
- 면목가증(面目可憎) : 얼굴 생김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 참괴(慚愧)하니 : 매우 부끄러우니.
- 야유원(冶遊園) : 난봉꾼이나 한량들이 오는 곳. 술집.
- 백마금편(白馬金鞭) :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 호사스러운 행장.
- 실슬(蟋蟀) : 귀뚜라미.
- 지위 : 탓, 까닭.

<끝>

[문제 2] (가)의 상인과 (나)의 법관의 직업활동에서 ㉠과 ㉡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각각 설명하고, ㉢의 의미를 (다)에서 찾아 설명한 후, ㉣과 ㉤이 사회와 국가에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다)를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나는 손님들에게 고구마를 후하게 줬다. 그래야만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집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주인이 나를 불렀다. 고구마가 많이 축난다는 것이다. 가마니째 달아 본 무게와 소매로 판 고구마의 무게가 많이 차이 난다고 했다. 그러니 앞으로 덩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내가 기록하고 있는 매상 장부를 보면 고구마는 갑절이 넘는 이윤이 나오고 있었다.

한 주일 뒤에 주인이 또 불렀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저울질할 때 요령껏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었다. 한 관씩 표시를 해 둔 작은 막대 ㉠ 저울로 고구마를 달 때, 손잡이를 잡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약간만 고구마가 얹힌 쪽으로 누르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다음 날 혼자서 그 요령을 시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커다란 ㉡ 속임수였다. 새끼손가락의 중간 마디로 저울대의 머리를 누르기는커녕 약간만 건드려도 3킬로그램만으로도 한 관이 되었다.

한 관은 3.75킬로그램이다. 그런데 3킬로그램만으로 한 관이 되게 속여서 파는 짓이다.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도무지 손이 떨려서 고구마를 달 수 없었다.

그런데 주인이 또 불렀다. 왜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는 시킨 대로 못 했으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주인과 머슴 사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지만 역시 인간 사회에는 계급이 있기 마련이다.

가난은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거짓을 강요받게 만든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주인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보낸 것이다. 그게 바로 스파이 행위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사람을 바꾸어 보낸 것이다.

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은 돈만 벌지 않고 악을 낳고 퍼뜨리는 악마다. 나는 그래서 그 돈에 복종했고 내 조그만 ㉢ 양심을 속이게 되었다.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이들이었다. 날고구마를 한두 관씩 사다가 찌서 파는 고구마 장수들, 한 끼니를 잇기 위해 한 관씩 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게를 속여야 했다. 고구마 두세 개씩은 속이게 되었다. 날개로 찌서 파는 아주머니는 될 수 있으면 작고 때깔이 좋은 걸 골랐다. 그렇게 작은 고구마라면 다섯 개도 속일 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두렵고 떨리며 괴로웠지만 차츰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나도 악마들의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다.

(중략)

어느 날 고구마 가게에 뜻밖에도 어머니가 찾아오신 것이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어서 고구마를 찌서 팔아 보려고 왔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께 고구마 두 관을 팔면서 하마터면 여느 사람들에게 하듯이 속일 뻔했다.

어머니를 보내 놓고 나는 그때서야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판잣집 가것방에서 혼자 자면서 거의 밤을 지새우다시피 울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가 생각났다. 돈 때문에 결국은 나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팔려 가는 주인공을 그린 오가와 미메이의 ‘빨간 양초와 인어’, 금으로 장식된 왕자의 몸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온몸을 부수어 이웃을 돕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십구 년이나 옥살이를 하는 ‘장 발장’의 이야기, 고구마 한 개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힘센 토끼한테 다 빼앗기는 이솝의 ‘생쥐 이야기’, 내 가슴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중략)

결국 나는 고구마 가게를 떠나기로 했다.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다.

<다음 장 계속>

(나)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형사 소송은 수사 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그 후속 처분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절차로서 개인에게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신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형사 재판은 법관의 주재 아래 피고인과 검사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가 고대의 사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오로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여 법원을 통한 형벌 부과만 정당한 것으로 사법 체계를 정비한 것은 중립적인 법관의 재판에 대한 ㊸ **공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와 같이 법관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신분을 두텁게 보호받는다.

그런데 재판 과정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한다. 법관은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때나 범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변호인 등 외부의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통용되고, 형량의 결정도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들이 늘 존재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량이 달라지고, 그 형량의 폭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 국민들은 사법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된다. 검사 또는 판사의 직에서 물러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만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세간의 말들이 떠도는 것 또한 이러한 재판 불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것은 재판 과정이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실주의(情實主義)에 휘둘려 재판내용의 ㊸ **불공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정실주의 : 사스러운 정(情)이나 관계에 이끌려 판단하는 것.

(다)

개인이나 사회가 부패했다고 말할 때, 부패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법 행위나 부정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부패라 하면 이권이나 뇌물이 연상되듯이, 특히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정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뜻으로 부정부패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사회의 부패는 일부 사회지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개인의 경우 초기의 사소한 규범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것이 점점 관행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져,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직업 영역에서 윤리의 범주를 이탈하였다는 것을 잊기도 한다. 각 직업 영역에는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 윤리의 토대가 되고, 그것은 개인 간의 신뢰에 기여한다. 사회지도층의 불법 비리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 국민들은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데, 이는 공직자나 특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심한 것은 연고주의(緣故主義)나 정실주의(情實主義)에 치우치거나 준법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적인 연고를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경제활동 등의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연고와 정실 요소가 개입하기 쉽다. 하지만 부패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직업적 양심과 규범을 저버리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패의 문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집단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 또는 조직의 부패는 고발이나 신고 없이는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려우므로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어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 모두 스스로 직업 윤리와 준법 의식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끝>

2020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해설

[인문계열-오후1번]

● 출제 의도

- 최근 대한민국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양성 평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 사건은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처럼 여겨져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성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성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성 교육의 핵심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sex, 성),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사회적·문화적 성(gender, 젠더),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 성애)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성의 역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보다는 젠더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특정한 성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성의 여러 개념을 이해한 후 여러 지문을 통해 중세와 현대의 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려 한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독서와 문법, 고전, 문학 등에서 다루고 있는 성과 관련된 개념적 설명과 문학적 작품, 고전적 비평 등을 통해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 본 문제의 취지는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고 해석하여 성에 대해 올바르게 논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가)에서는 성에 대한 세 가지의 개념과 양성 평등에 대해 설명해 놓았는데 이 가운데 하나의 개념인 성으로 (나)의 ‘안사람’이라는, 다분히 가부장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에서는 육체적 차이에서 발생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고, 이후 (라)의 허난설헌의 <규원가>에 드러난 조선 시대 유교 질서의 남녀 차별과 그 상처의 응시를 (다)의 보부아르의 <제2의 성>를 통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가)는 성에 대한 세 가지 개념과 양성 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는 ‘안사람’이라는 용어가 젠더적 관점의 비판적 단어가 아니라 여성의 육체를 고려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일부분인 (다)는 유아기 때에 동등하던 남성과 여성이 이후 어떻게 남성과 여성으로 길러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허난설헌의 <규원가>인 (라)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의 아픔이 애절하게 녹아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라)의 중세의 규방가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가)와 (나), (다)와 (라)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8명	천재교육	2014	64, 66	제시문 (가)	0
독서와 문법	이삼형 외 8명	지학사	2014	38	제시문 (나)	0
고전	김종철 외 4명	천재교육	2014	79-81	제시문 (다)	0
문학	정재찬 외 5명	천재교과서	2014	52-54	제시문 (라)	X

● 채점 가이드라인

- ① (나)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한 후 (가)의 생물학적 성(sex, 성)과 연결했을 경우 최대 **10점**
- (나)의 내용을 (가)의 생물학적 성(sex, 성)과 연결했을 경우 최대 **5점**. 단 생물학적 성, sex, 성 등도 모두 답으로 처리한다.
 - (나)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안사람’이라는 단어가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에서 나온 것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임신과 육아에 필요한 공간으로서의 안방과의 연관성, 그 안방은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외부로 지나서 닿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 이런 사고는 원시 시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적절히 언급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생물학적 성(sex, 성), ‘안사람’, 신체적 차이, 임신과 육아, 안방, 외부 공간, 원시 시대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② (라)의 시적 화자가 왜 죽고 싶다고 했는지 이유를 (라)에서 찾아서 적절하게 제시할 경우 하여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라)에서 시적 화자가 님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는데 님이 남편이고, 그는 장안의 험객이고 경박한 사람이며, 결혼 후 집을 나가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몇 년 동안이나 소식조차 없다는 것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라)에서 시적 화자는 난봉꾼인 남편을 그리워하며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부끄러워하며 기다린다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님, 남편, 장안험객, 경박한 사람, 야유원(술집), 새 사람(여자), 소식 없음, 시간 경과, 참피(부끄러움), 기다림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③ (다)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과 서로 다른 주체성 형성 과정을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20점**
- (다)에서 어린 시절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성적인 구별 없이 동일한 성장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에서 남자아이는 주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에서 여자아이는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의 충돌의 결과, 자신을 객체로 바라보게 되고, 자율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적절하게 서술하면 최대 **5점**

- 앞에서 서술한 이유 때문에 (라)의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시적 화자인 여성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남자아이, 여자아이, 동일한 성장 과정, 주체성, 자주적 존재, 타자 존재, 객체, 자율성, 수동성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모범답안

‘안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양식에 근거한 말이다. 여성은 15세에서 40세에 이르는 기간에 임신을 하거나 육아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로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내부의 안전한 공간에서 그녀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말이라는 것이다. 살벌했던 원시 시대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는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sex)’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의 시적 화자는 님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다. 여기서 님은 그녀의 남편인데, 장안의 험객이며 경박한 사람인 남편은 결혼 후 집을 나가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몇 년 동안이나 아내에게 소식조차 전하지 않지만, 시적 화자는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을 그리워하고, 한편으로는 늙어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작정 기다린다.

시적 화자가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 성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이후 남자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가면서 주체가 되어가지만, 여자아이는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의 충돌의 결과, 자신을 스스로 객체로 바라보게 된다. 결국 남자아이와 달리 여자아이는 자율성이 부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의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시적 화자인 여성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 (764자)

2020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해설

[인문계열-오후2번]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부패의 문제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관행화되며 결국은 사회와 국가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부패의 문제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 각자가 직업 영역에서 얼마만큼 직업 윤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위 내지 판단을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패 방지는 한편으로 직업 윤리와 다른 한편으로 법규범의 논의에 그 토대를 두어야 가능하다.
- (가)에 따르면, 고구마를 파는 상인(판매자)은 어느 누구와도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롭다. 시장 참여자들은 오로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시장 가격과 그 기준에 따라 매매를 시작한다. 여기서 매매 대상은 고구마이지만 그 매매의 기준은 저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아래 저울의 기준(객관성)에 따라 시장은 규율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인은 속임수를 쓰게 되어 부정할 이익을 탐하는데, 이들 상인에게 양심의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심은 상거래의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이며, 부정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유혹을 떨치게 하는 통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나)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 심판자 역할을 한다. 사법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관의 재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생명이다. 심판자로서 법관이 공직 사명을 저버리고 중립성을 잃게 되면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전관예우’ 등의 통용은 재판의 불공성을 비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공직자인 법관은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실주의를 단호하게 배척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다.
- (다)에 따르면, 한 나라의 (부정)부패는 다양한 영역과 요인에서 나온다. 국가의 선진화 정도 또한 부패의 수준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부패는 공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공직 사회의 부패라고는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문제되는 준법 의식의 약화나 규범의 무시 현상을 빼놓을 수는 없다. 부패는 일정한 직업 영역 등에서 거래의 판단 내지 의사결정 등의 과정에 연고주의나 정실주의 등이 개입하여 공정한 결정을 방해하고, 부정할 이익을 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직업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단순히 사적 범위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공정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또는 국가통합을 해친다.

●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박종호 외	창비	2018	277-281	제시문(가)	○
고등학교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6	176	제시문(나)	○
고등학교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2018	32, 125, 188, 194	제시문(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7	191-194	제시문(다)	○

● 채점 가이드라인

* 아래 ①, ②항목은 각 최대 15점, ③항목은 최대 5점, ④항목은 최대 10점, ⑤항목 최대 5점, 합계 50점

① (가)의 상인이 고구마를 부정하게 판매한 행위의 비난의 근거로 양심(☹)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 양심은 저울 눈속임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통제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면 **최대 15점**

- 거래 행위의 기준, 저울의 기능을 분석하여 서술(5점)
- 신뢰의 중요성, 부정한 이익(불공정한 행위)(5점)
- 직업 윤리의 가치로서 양심, 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양심(5점)

Key Words: 저울, 부정한 이익, 신뢰, 양심, 직업 윤리, 상도덕

② (나)의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재판 신뢰의 토대를 이룬다는 것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면 **최대 15점**

- 법관의 중립성과 객관적 판단, 신뢰성의 토대(5점)
- 외부세력의 힘이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유지하고 정실주의의 배척(5점)
- 공직자로서 법관의 사명, 판결의 정당성(5점)

Key Words: 중립성, 신뢰, 공정성, 객관성, 정실주의

③ 저울(㉠)은 거래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교환기준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면 **최대 5점**

- 거래 기준 및 판단 기준으로서 사회적 약속, 객관성 또는 신뢰를 상징(5점)

Key Words: 거래 기준, 판단 기준, 사회적 약속, 객관성, 신뢰

④ (다)를 활용하여 속임수(☹)와 불공정(☹)이 부패 온상의 원인이 되고, 결국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 또는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연결지어 적절하게 논술하였으면 **최대 10점**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부패 원인, 부당한 이익 추구하고 객관성 상실(사소함에서 확대)(5점)
- 불신 사회를 초래, 사회 또는 국가 통합을 해침,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위화감 조성(5점)

Key Words: 부패, 부당한 이익, 객관성, 불신, 준법 의식의 약화, 사회 또는 국가 통합, 공정 경쟁, 위화감

⑤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 및 논지 전개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모범 답안

(가)의 상인은 소비자에게 고구마를 판매하는 시장 참여자로서 저울의 눈금대로 물품과 돈을 교환하여야 한다. 상인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약속을 어기고 객관적 기준인 저울을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그는 부정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양심(㉔)은 정상적인 상도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윤리의 가치로 작용하고, 거래 행위에 부정의가 개입할 위험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나)의 법관은 공직자로서 재판과정에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법관은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최종적 권한을 부여받는 공직자이므로 그들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재판은 돈, 권력 또는 정실주의 등 외부의 관계나 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에 대한 공정성(㉕)은 법관의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덕목이자, 재판 신뢰의 근간이다.

저울(㉖)은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그 눈금과 거래 조건은 결국 사회적 약속, 객관성 또는 신뢰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저울은 거래뿐만 아니라 일정한 판단의 기준으로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속임수(㉗)와 불공정(㉘)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부패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습관화될 경우 부당한 이익 추구나 객관성을 잃는 결정들로 채워진다. 부패는 사회와 국가에 불신을 초래하고, 준법 의식을 약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쳐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편법을 조장하며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796자)